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23호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칼럼

코로나19 시대 계약직 체육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송민기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꿈꾸는느림보 사회적 협동조합

폭행사건 기해자, 체육단체장 당선

‘술집 폭행’ 한화 3남, 규정 어기고 체육단체장 당선

김우준 KBS NEWS 기자

김세훈의 스포츠IN

고교체육수업 축소...부글부글 끓는 체육교사들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경기도교육청 온라인포럼

“답은 현장에!” ‘스마트 경기체육교사’ 들이 제안한 학교체육의 미래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제주도체육회

소년체전 기간 여직원 강제추행 한 제주도체육회 간부 입건

백나용 연합뉴스 기자

스포츠도박

‘검은 안개 사건’ 기억 日 체육계... “스포츠 도박 도입 안돼”

강구열 세계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코로나19 시대 계약직 체육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송민기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꿈꾸는느림보 사회적 협동조합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로 2020년 1월에 세계보건기구 비상사태를 선언 더 나아가 3월에는 팬데믹 즉 세계적 범유행으로 격상되어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 이 뉴스를 언론에서 처음 접했을 때 이 바이러스가 필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치 못했다.

본인은 프리랜서 특수체육 강사로 12년째 학교 특수체육 방과 후 수업을 장애학생들에게 지도했었다. 학교와의 계약은 보통 3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였기에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특수교사와 방과후 수업을 위한 협의를 했었는데 2020년 1학기 수업은 COVID-19로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전화로 통보받았다. 이 전화 한 통으로 나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말이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한 학기만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수업에 피해를 줄까 우려되어 다른 일도 구하지 않고 있었는데 COVID-19가 장기화하면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는 계약직이기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일을 쉬어본 경험이 없었기에 더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처음으로 계약직 체육강사라는 것에 한탄스러웠다.

이런 상황에 놓인 체육인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고 비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계약직 방과후 체육 종목을 지도하는 강사들, 학교 체육 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 강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체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아체육강사 그리고 성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지도하는 피트니스 종사자들, 요양보호원에서 어르신의 신체활동을 지도하는 어르신 신체활동 강사 등 많은 분이 나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 더는 생계에 위협을 느낀 분들은 버티다 못해 다른 직업군으로 이직했고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폐업 또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계셨다.

본인은 1년이 지난 후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체육 관련 일 외에 다른 일을 할까? 고민도 했지만 전공 분야에서 COVID-19 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K아동발달센터 특수체육강사, D그룹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G구 장애가족지원센터에 체육 방과후 강사, S시 보건소 장애 어르신 비대면 신체활동, K 사회적 기업의 비대면 특수체육 자격증 강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COVID-19 시대에도 지속할 수 있을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어 K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장애학생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

본인은 학부를 졸업하고 처음부터 계약직 직원을 찾았던 것 아니었지만 체육 관련 정규직 체육 관련 직종으로 특정 직업 외에는 생각나지 않았다. 정규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2400만원이 되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였고 2022년 지금도 연봉 상승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15년에 자격제도 개편에 따라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6종 9급의 체계로 양성되고 있지만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정규직 취업 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으로는 건강운동관리사,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스포츠강사 등이 있고 그나마 2020년부터 생활스포츠지도자와 장애인 생활스포츠지도자가 정규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지만 무기계약직이라 1년차나 10년차나 연봉은 크게 변화가 없다. 선배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부단한 노력이 앞으로의 후배 체육인 양성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술집 폭행' 한화 3남, 규정 어기고 체육단체장 당선



김동선 씨는 2006년부터 승마 국가대표였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만 금메달 3개를 땀습니다.

[김동선/한화그룹 회장 3남/2014년 1월 : "세계적인 선수들과 한 번 겨뤄볼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긴장도 되고."]

지난해에는 한국학생승마협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합니다.
초·중·고·대학 선수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대의원 투표에서 당선된 김 씨는, 상급 단체인 대한승마협회 인준을 거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규정대로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승마협회 정관은 임원 결격 사유의 하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씨는 2017년 만취 상태에서 술집 종업원을 때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집행유예 기간에도 변호사를 폭행한 일이 있습니다.

[김동선/한화그룹 회장 3남/지난 2017년 1월 : "그 죄에 따른 어떠한 벌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단체 상당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임원으로 앉히지 않습니다.
이른바 '맷값 폭행'을 저질렀던 최철원 M&M 대표가 아이스하키 협회장이 되려다 무산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승마협회는 인준 절차를 진행할 당시, 새로 취임한 협회장이 규정을 잘 몰라 벌어진 일이라며,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신/대한승마협회 회장 : "(규정을) 알았으면 승인을 안 했을 텐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준취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선 씨 측은 승마인으로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싶어 무보수 명예직을 맡으려 했던 거라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다뤄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2020년 12월 한화그룹에 복귀한 김 씨는 갤러리아 상무에 이어 지난 3월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임원에도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고교체육수업 축소... 부글부글 끓는 체육교사들

요즘 고등학교 체육 교사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체육수업이 크게 위축될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고등학교는 교육과정편제표를 수정하고 있다. 고교 3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204단위(학점)에서 192단위(학점)로 줄이는 작업이다. 여기에서 '단위'는 고교 3년 동안 공부해야 하는 수업 시간을 의미한다. 192단위를 과목별로 쪼갠 뒤 그걸 학생들이 3년(6개 학기) 동안 배우는 식이다.

지금까지 체육은 12단위였다. 12단위는 학기당 2단위씩 분할됐다. 학기당 2시간(주당)씩 체육수업을 했고 그게 6개 학기면 12단위가 된다. 최소 단위는 10단위다. 체육은 주당 2시간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2단위로 유지됐다. 반면, 음악과 미술 수업은 대부분 10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총 이수학점이 204단위(학점)에서 192단위(학점)로 축소되면, 특정 과목 수업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걸 어느 과목이 감수하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체육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체육수업을 12단위에서 10단위로 줄이는 고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체육 교사들이 저항해도 별반 소용이 없다. 교사 숫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국영수 등 대입 과목 교사들을 설득할 수도, 누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교장도 숫자가 많은 교사 편을 들고 있다. 대학 입시와 승진 논리에 학생 건강이 무시당하는 꼴이다.

체육수업이 10단위로 줄면, 3학년은 주당 1시간만 체육을 한다. 학기가 16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기당 총 체육수업은 16시간뿐이다. 체육수업에서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PAPS)를 의무 수행해야 한다. PAPS는 5개 분야에 걸쳐 운동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임성철 운산고 체육교사는 "1시간 연습하고 1시간 평가하면 PAPS를 하는데만 10시간이 든다"며 "남은 6시간 동안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임 교사는 "건강 유지, 스트레스 해소, 원만한 교우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체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당 1시간 수업으로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스포츠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 의무로 규정한다. 윤석열 정부도 '국민스포츠권'을 주창하며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고교생 스포츠권은 입시 논리에 의해 묵살당하고 있다. 미국·독일·핀란드·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 세계 명문 학교들이 시간이 남아서 체육을 비중 있게 하는 게 아니다. 체육이 건강한 몸, 심리적 안정감,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도덕과 의무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국영수가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다. 한국 청소년 자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주요 원인이다. 거기에서 잠시라도 탈출해 숨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게 체육수업이다. 웃으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웃으면서 수업을 받고 수업을 받은 후에도 웃을 수 있는 수업은 체육 수업뿐이다. 학생들의 웃는 얼굴은 체육수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준다.

- ①체육은 나이, 성별, 계층, 장애, 피부색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는 교과다.
- ②체육은 몰아치기식 수업이 불가능하다.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③학생은 체육을 통해 신체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원만한 교우 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배운다.

세 가지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입시 과목 교사, 교감과 교장, 교육청, 교육부는 정녕 이것 모른다는 말인가.

“답은 현장에!” 스마트 경기 체육교사들이 제언한 학교체육의 미래

“미래 체육수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용인 경기학생스포츠센터에선 현장 체육교사들이 중심이 된 의미 있는 토론회 '2022 미래학교 체육교육 온라인 1차포럼'이 열렸다.

경기도교육청과 위피크, 건강한신체활동연구소가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의 체육교사들에게 공유됐다.

정대진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사가 진행을, 김승환 건강한신체활동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태구 백신중 교사가 '미래체육수업의 방향과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디지로그 체육수업'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교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체육교육 건강 국제비교 분석보고서'를 근거로 '지구촌 체육교육의 본질적 특성'과 '미래 체육의 수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스마트체육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체육교육과 스마트 교육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후 "지구촌 역량 기반 체육교육 과정에서 첫 번째로 지향하는 것이 개인적, 사회적 기술과 ICT 및 디지털 문해력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미국 애플사가 1985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애플 교실'을 좋은 예로 제시했다. "애플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애플교실을 시작하면서 스마트 교육이 학습동기 유발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가 널리 활용되고, 비용이 낮아진 2008년 두 번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초등교사와 기술전문가가 협업해 학생들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게 하고, 교사는 학생이나 팀에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했다.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이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게 했고, 수업 후 학생들은 스스로 운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시 교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짚었다. "교사는 매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갖고 기술 기기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야 한다.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자신이 더 스마트하게 교육했다는 생각에 빠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공적 '디지로그' 체육수업 실천을 위한 "교사 공동체의 학습조직화"도 제언했다. "학습조직은 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교사 연구회 활동과 연계돼야 하고 교육청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앞서 말한 애플사의 사례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사는 "운동에 지름길이 없는 것처럼, 미래체육의 과제에도 지름길은 없다"면서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가 우리 학교체육이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권경섭 포곡초 교사(용인놀이체육연구회), 최원섭 화성중 교사(경기도 뉴스포츠연구회), 이제명 봉담고 교사(수업디자인연구회), 한정민 기산중 교사(IoT학교체육연구회) 등 경기학생스포츠센터에서 자발적 연구모임을 이어나온 체육교사 4명과 최해인 LG프로젝트 3팀 선임 등 IoT 산업 현장의 실무책임자가 함께 했다.

다음 장 계속

권경섭 포곡초 교사는 미래 체육교육의 방향에 대해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신체활동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놀이체육' 등 3가지 테마를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이 함께하는 꿈의 학교'에선 학교에서 킨볼을 처음 배운 후 코리아킨볼 대회에 참가해 '킨볼 국가대표'와 만나며 '국대'를 꿈꾸게 된 아이들의 현장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했다.

최원섭 화성중 교사는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미래학교'를 제안하면서 "미래 학교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움직임(신체활동)' "이라고 강조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것이 체육교육의 근본"이라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이어 "신체나이에 맞는 신체발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즉, '초·중·고 연계수업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최 교사는 "축구 수업의 경우, 초·중·고 모두 패스, 드리블, 슈팅 후 게임을 하는 똑같은 방식이다. 각 신체나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연계성 있는 수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기관, 스포츠산업, 학교의 협력체 구성, 체육과 영양의 연계 수업활동, 환경 개선과 공간 혁신"도 함께 제안했다. "예전 운동장에 있었던 정글짐이 안전사고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 위험하다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바꿀지 고민할 때다. 운동장이 작아지고 있다. 운동장은 커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제명 봉담고 교사는 '미래 학교체육과 준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사는 "미래학교가 변혁의 흐름을 놓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도태될 것"이라면서 미래 학교체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체육의 본질에 대한 인식 강화, 둘째 스마트 체육수업 기술 습득, 셋째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 교감의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교사는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다른 교과보다 인간적 교감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디바이스를 통해 수업공간을 만들었을 때도 눈과 눈을 마주치고 몸과 몸을 부딪치는 교감, 긍정적 피드백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민 기산중 교사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스마트 체육수업의 구현'을 주제로 현장서 직접 적용해본 IoT(사물인터넷) 스마트체육 수업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IoT 줄넘기, VR 생존수영, t스마트 카운터기, 무선 심박계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학생들의 자발적 운동동기를 부여하고 축적된 빅데이터 통해 개인화된 맞춤형 피드백을 제시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기록을 스마트 기기로 측정하면, 블루투스나 앱을 통해 홈페이지와 교사의 컴퓨터에 기록이 자동입력되고, 엑셀로 자동 다운되는 방식. 한 교사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운동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축적된 데이터는 건강지표로 활용 가능하다"면서 "향후 디바이스의 기능 개선,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의 사례 적용, 체육수업에 적용가능한 더 다양한 디바이스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해인 LG프로젝트 3팀 선임은 "최근 기업들이 헬스케어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전자가 출시한 이동형 무선 TV가 서울형 모듈러 교사 등 학교체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카메라 센서가 운동하는 사람을 촬영하면 산소포화도, 심박수 등이 자동측정되고, 이력이 관리되고 기록된다. 이런 부분이 교사, 관리자들에게 용이할까, 학교에 적합할까를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교육부 학교공간 혁신 사업에 참여했던 최 선임은 기업 관점에서 본 의제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개인정보 관리 접근성, 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통한 체육 꿈나무 육성" 등 3가지를 꼽았다. "학교의 다양한 변화를 대기업이 맞출 수 있을까. 스마트 기기를 통해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 위험없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수많은 빅데이터와 이를 통한 총체적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최 선임은 "대기업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학교의 모든 상황을 알기 힘들지만 뚜렷한 목표가 정해지면 어떤 기업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학교와 기업을 잇는 연결고리가 중요하다. 협회, 연구회에 소속된 교사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다. 기업과 학교체육의 연결고리를 하는 기업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취적인 스마트 학교체육 사업을 함께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의 학교체육, 학교체육의 미래에 대한 경기 지역 현직 체육교사들의 현장 전문성, 체육교육에 대한 수없는 고민과 연구에 기반한 통찰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날 토론은 수준과 열기만큼 반응 역시 뜨거웠다. 공부하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지속적인 연구모임과 이를 통한 경험 및 지식, 방향성 공유, 포럼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제언은 타 시도 교육청도 모범 삼을 만하다.

성정현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은 "2022년 경기학생스포츠센터 1차 포럼을 무사히 마쳤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과 단절되고 고립과 무기력감에 힘들어 하시던 우리 체육선생님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미래를 준비하는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평가한 후 "이번 포럼을 계기로 8월 역량강화 연수를 잘 준비하고 12월 2차 포럼 때는 더 폭넓은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학계, 기업, 학부모, 학생등 다양한 시각을 통합한 포럼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소년체전 기간 여직원 강제추행 한 제주도체육회 간부 입건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제주도체육회 간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제주도체육회 간부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대구시 내 길거리에서 자신의 볼을 여직원 B씨의 볼에 비비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주도체육회 임직원들은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에 머물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숙소 인근에서 체육회 회식이 끝난 뒤 B씨에게 "커피 한잔하자"며 따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지난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검은 안개 사건’ 기억 났 체육계... “스포츠 도박 도입 안돼”

“시기상조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감독을 지낸 호리우치 쓰네오(堀内恒夫)씨가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을 듣고 한 말이다. 일본 정부는 스포츠 도박이 스포츠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이나 스포츠계에서는 승부조작, 도박중독의 위험 등을 걱정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경제산업성이 경기의 결과나 내용에 대한 배팅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반대론이 만만치 않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산성은 다양한 스포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자가 야구나 축구, 농구 등 종목별 리그나 클럽에서 받은 시합 정보, 영상을 구입한 뒤 배팅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참가자는 이를 토대로 시합을 보면서 배팅할 수 있게 된다. 신문은 “경산성은 스포츠청과 함께 다음달에 ‘스포츠미래개척위원회’를 5년 만을 열어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며 “형법은 도박을 금지하고 있지만 경마나 경륜, 축구 등의 복권은 특별법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2015년 기준 5조5000억엔(약52조원) 규모인 일본 스포츠 시장 규모를 2025년까지 15조엔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 스포츠 진흥이나 공립중학교에서의 부활동 운영비로 충당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도박을 허용할 경우 승부조작이나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는 야구계에서는 “팬들의 저항감이 클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야구계는 승부조작, 도박의 금지는 물론 일본스포츠진흥센터가 운영하는 스포츠복권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2015년에 정치권 스포츠의원연맹에서 야구를 복권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적이 있지만 야구계는 반대했다. 특히 ‘검은 안개 사건’(일본의 프로 야구 관계자가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관여했다고 여겨지는 일련의 의혹, 사건으로 1960년대 말~1970대 초 잇달아 발각됐다)을 잊지 않은 팬들 사이에서 저항감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구계의 경우엔 성장전략의 하나로 스포츠도박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법적 문제, 중독성 등의 문제로 사회적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인기스포츠인 스모협회 관계자는 “도박이 아니더라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 도박을 통해 확보한 돈을 공립학교 부활동 운영비로 쓴다는 구상에 대한 비판도 강하다. 오하시 모토히로(大橋基博) 나고야(名古屋)조형대 교수는 “아이들의 부활동을 이유로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학생들의 교육이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운동이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부산,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무상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3024900051?input=1195m>

제주시, 태풍철 앞두고 공공체육시설 일제 점검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3_0001905147&cID=10813&pID=10800

폭염·미세먼지에도 VR로 체육시간 즐겨요

<https://www.news1.kr/articles/?4709581>

KPC,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중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32426?ref=naver>

포항시체육회 사이클 실업팀, 전국 사이클대회 휩쓸다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244>

제주시, 여름철 재난 대비 공공체육시설 일제 점검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849>

[특집] 충남장애인체육대회 D-100일 “단절된 3년의 시간을 잇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470>

용인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9_0001901358&cID=14001&pID=14000

울산, 주말 곳곳서 체육대회로 ‘활력 충전’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689>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